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민간전문가들 참여,
배출사업장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 및 지식 공유,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4월부터 연말까지 대전·세종·충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다양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에서는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1년부터 매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 2년간(‘21.~‘22.) 총 40개의 사업장을 점검, 20개의 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였으며(위반율 50%),

금년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에는 충남·충북·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인협회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중복 인·허가사업장, 상습 위반사업으로, 시기별 주요 현안(노후사업장, 연휴·휴가철, 녹조 취약 시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배출사업장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기술 자문 및 지식을 습득하여 자율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로 밝혔다.

담당 부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책임자	과 장	김종철 (042-865-0861)
		담당자	주무관	권종훈 (042-865-0865)